

社說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후보되어야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중반전을 넘어가고 있는 요즘 후보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30일 포천장터에서 각 후보들은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후보들이 연설할 때 이곳을 찾았던 시민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외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후보들이 동원한 선거 운동원들만이 자신의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연호가 계속될 뿐이었다.

후보들은 포천시 현안문제를 풀겠다는니 혹은 자신이 국회에 들어가면 지역의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장애인 정책을 잘 펼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힘주어 말하곤 했다.

30일 포천장터 선거유세는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출마한 4명의 후보가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지지호소 선거연설을 하고 장터 입구에서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느라 바쁘게 보냈다.

그러나 장터 입구에는 장애인이 일어설지도 못하고 엎드려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후보들의 지지호소와 장애인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시민들은 바라봤을 것이다.

후보들은 순서를 바꿔가며 이곳에서 유권자들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어느 후보 한 사람도 이 장애인에게 눈길을 준 사람은 없었다. 이곳을 지나가던 시민들 중에는 장애인에게 몇천원을 주기도 했지만 장애인 정책을 잘 펼쳐보겠다고 유세를 하던 후보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다만 김영우 후보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방문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만이 장애인에게 관심을 표명했을 뿐이다.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에게는 관심조차 없고 유권자들의 표에 관심을 보였다.

후보들은 장애인 공약을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공약이라고 하면 유권자들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하는 자리에 서조차 말로만 할 뿐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보자들의 오만이다.

후보자들의 행태가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은 선거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정책 혹은 공약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이다. 후보들은 자신만이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후보들에게 큰 약속이나 공약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실천가능한 공약, 그리고 후보 자신이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후보들 중에서 한사람은 분명히 포천시와 연천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당선된 사람이 누가 되더라도 지역민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주문이다.

유권자들은 결모습이 화려한 공약보다 다소 작고 시시하게 보여도 후보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전은 중반을 향해 가고있다. 후보들은 당선 이전에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기념식

포천시와 연천군 발전 위해 일할 일꾼은 누구?

(주)포천신문사는 오는 4월9일 실시하게 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3월25일 오전10시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300여명의 유권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력후보 3명을 초청해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통합민주당 장명재 후보와 한나라당 김영우 후보, 무소속 박윤국 후보가 참석했으며 사회는 대진대학교 배기목 교수, 경제분야 패널은 한희준 한신당 대표, 교육분야 패널 김만수 축석초등학교 교장, 사회분야 패널 김재동 변호사, 교통분야 패널 하승만 포천신문 취재국장이 받았다.

토론회에 앞서 가진 기념식은 사회자를 비롯 패널에게 위촉장을 전달해 공정하고 바르게 토론회를 진행

할 줄 것을 당부했고 후보자들과 패널이 함께 진지하고 공정한 토론회를 다짐하는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최호열 (주)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포천시 연천군 유권자들에게 우리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 토론회가 포천시와 연천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모두발언을 통해 각 후보자들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와 당선후에 실천할 공약 등을 발표했으며 패널

공통질문 및 답변시간에는 패널 1명이 각 후보자들에게 공통으로 경제, 교육, 사회, 교통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었다.

이어서 패널 1명이 1명의 후보를 지명해 개별질문과 답변을 받았으며 방청객을 대상으로 서면질문과 즉석 질문을 받아 후보자들의 즉석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어 마무리발언을 통해 후보자들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포천시와 연천군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날 실시한 토론회를 제408호 3면부터 12면까지 지상중계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키로 했다.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가 포천시연천군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택하는데 오늘 토론회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기념사를 하고 있다.



장명재, 김영우, 박윤국 후보가 제18대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포천시의 연천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자 및 패널로 참석한 분들에게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가 위촉장을 전달하고 공정하고 바른 진행을 당부했다. (사진은 이날 토론회 사회자 대진대학교 배기목 교수에게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가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좌로부터 하승만 포천신문 취재국장, 김재동 변호사, 한희준 한신당 대표,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 장명재 후보, 김영우 후보, 박윤국 후보, 김만수 교장, 배기목 사회자)



토론회 전경

역대 국회의원 현황

제헌국회의원 (1948.5.10)	서정희(한국민주당)
제 2대 국회의원(1950.5.30)	윤성순(무소속)
제 3대 국회의원(1954.5.20)	윤성순(자유당)
제 4대 국회의원(1958.5.2)	윤성순(자유당)
제 5대 국회의원(1960.7.29)	김영구(민주당)
제 6대 국회의원(1963.11.26)	홍익표(민주당)
제 7대 국회의원(1967.6.8)	오치성(민주공화당)
제 8대 국회의원(1971.5.25)	오치성(민주공화당)
제 9대 국회의원(1973.2.27)	김용채(민주공화당) 천명기(신민당)
제 10대 국회의원(1975.2.12)	오치성(민주공화당) 천명기(신민당)
제 11대 국회의원(1981.3.25)	홍성표(민주한국당) 이한동(민주정의당)
제 12대 국회의원(1985.2.12)	이한동(민주정의당)
제 13대 국회의원(1988.4.26)	이한동(민주정의당)
제 14대 국회의원(1992.3.24)	이한동(민주자유당)
제 15대 국회의원(1996.4.11)	이한동(신한국당)
제 16대 국회의원(2000.4.13)	이한동(자유민주연합)
제 17대 국회의원(2004.4.15)	이철우(열린우리당)
제 17대 국회의원(2005.4.30)	고조홍(한나라당)
제 18대 국회의원(2008.4.9)	?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두로: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집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발행인 최호열
편집국장 김영복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준수요강을 준수한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3월 20일 ~ 3월 30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02-172934) 예금주 : 최호열(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8. 3. 20 포천신문 제407호 발행
2008. 3. 31 포천신문 제408호 발행
2008. 4. 10 포천신문 제409호 발행예정